

KIA 김태형 “떨렸던 데뷔전, 10점 만점에 5점 줄래요”



키움전 6-9 뒤진 7회말 등판...1이닝 1볼넷 무실점
“몸 관리 잘하고 마운드 안팎에서 열심히 배우겠다”



KIA '고졸 루키' 김태형이 지난 24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김태형은 볼넷 하나를 내줬지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KIA 타이거즈 제공)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KIA 타이거즈의 루키 김태형이 자신의 프로 데뷔전에 '5점'을 줬다.

김태형은 지난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0차전에서 기다렸던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김태형은 6-9로 뒤진 7회말 팀의 5번째 투수로 나와 키움의 외국인 타자 스톤 개럿을 마주했다.

초구에 144km 직구를 던져 파울을 유도한 김태형은 6구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로 첫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이후 주심원은 2구째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어준서와의 승부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주자를 내보낸 김태형은 김건희를 상대로 연달아 볼 2개를 던졌지만 3구째 2루 땅볼을 유도했다. 박민호의 좋은 수비로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기록되면서 김태형은 1이닝(15구) 1볼넷 무실점으로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1군 콜업을 받았던 김태형의 기다렸던 데뷔전.

김태형은 “등판할 것을 모르고 경기를 보고 있었다. 1이닝 전에 말씀해 주셔서 긴장할 틈도 없이 준비를 시작했는데 떨려서 준비가 잘 안됐다. 계속 풀면서 제구만 하자는 마음으로 올라갔다”며 “초구는

어떻게든 스트라이크 낚자는 생각으로 가운데 보고 던졌다. 투아웃까지는 잘 잡았는데 스트레이트 볼넷 주고 막판 흔들린 모습이 있었다. 그래도 첫 등판 무실점했으니 5점을 주겠다”고 웃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데뷔전, 김태형은 기대했던 장면을 남기지 못한 게 아쉽다.

김태형은 “예전에 최강야구 때 고척에서 던진 적이 있어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다른 느낌으로 더 긴장되고 몸도 잘 안 움직여졌다. 경기 끝나고 영상 보니까 폼도 급해보이고 긴장한 것 같았다.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며 “첫 등판이니까 다 축하한다고 해주셨는데, 코치님이 ‘너무 힘이 들어갔다. 힘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하셔서 힘 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첫 경기를 복기했다.

변화구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날 김태형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구사했지만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난 공이 많았다.

김태형은 “(첫 타자 때) 투 스트라이크 잡으니까 확실하게 던지고 싶어서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너무 땅으로 갔다. 커브는 들어갔는데 큰 파울이 나왔다. 살짝 밀려서 들어갔다”며 “확실하게 변화구를 던지려고 했다. 아래 칸에 넣으려고 했는데 욕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직구 힘은 괜찮았다. 하지만 첫 등판하면

조금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거라는 나만의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은 데뷔전의 아쉬움을 돌아보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등판을 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김태형은 “마운드에서 여유 있게 내 공을 던지면 좋을 것 같다. 변화구 제구도 신경 쓰고, 투아웃 잡고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최대한 사사구를 안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직구든 변화구든 커맨드가 제일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운데만 보고 내 공 던지자는 마음으로 던지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운드 밖에서도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김태형은 “(동기 이호민이랑) 같이 있으니까 편하고 기쁠 수 있어서 좋다. 호민이가 점수 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데뷔전 축하해줬다”며 “형들이 어떻게 몸 관리하고, 시합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지도 배우고 있다. 구종이랑 금금한 것도 물어보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배울 게 많다. 형들이 던지고 치료도 꾸준히 받고 몸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몸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선배님들, 형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필승조까지 자리잡았는지 생각하면 멋있고 대단한 것 같다. 중요한 상황에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고 부럽다. 따라 배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낚지 않는다, KIA 최형우

KBO 리그 최초 1700타점 달성

18시즌 연속 50타점 기록도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경신 도전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 최형우의 전성시대는 계속된다.

최형우는 지난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KBO리그 처음으로 1700타점 고지에 올랐다.

최형우는 0-0으로 맞선 1회초 1사 1-2루에서 역사를 작성했다. 4번 타자로 나선 최형우는 키움 선발 김윤하의 2구째 142km 직구를 가운데 담장 밖으로 날렸다.

이 경기 전까지 1698타점을 쌓았던 최형우는 홈런으로 한 번에 3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1700타점을 넘겼다. KBO리그 최초의 기록이다.

최형우는 동시에 18시즌 연속 50타점 기록도 달성했다.

올 시즌 47타점을 기록하고 있던 최형우는 3점 포로 50타점도 채웠다. 18시즌 연속 50타점은 SSG 최정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기록의 사나이’ 최형우는 올 시즌 귀해진 ‘3할 타자’이기도 하다.

최형우는 이날 2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등 3타수 1안타로 타율 0.327을 기록했다.

24일 현재 삼성 김성운이 0.358의 타율로 1위에 자리하고 있고, 롯데 레이예스(0.347), NC 박민우(0.331)에 이어 최형우가 0.327의 타율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화 문현빈이 0.326의 타율로 ‘3할 타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부상 병동 KIA에서 가장 꾸준하면서도 강렬한 활약을 하고 있는 최형우는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기록 경신도 노린다.

최형우는 최근 발표된 올스타 베스트12에서 나뉘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는 팬투표에서는 94만 9610표를 얻어 문현빈(126만 2466표)에게 밀렸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최형우는 동료들에게 166표를 받으면서 90표를 차지한 문현빈을 총점 0.27점 차이로 누르고 박찬호(유격수), 김도영(3루수)과 함께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형우는 올스타전에서 자신이 세운 ‘최고령’ 기록 경신에 도전하게 됐다.

최형우는 지난해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솔로홈런 포함 3안타 맹타를 휘두르면서 MVP로 선정됐다.

40세 6개월 20일에 MVP를 받은 최형우는 이병규(2011년·36세 8개월 28일)를 넘어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에 등극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고참' 최형우가 지난 24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선제 스리런을 날리면서 KBO리그 최초 1700타점을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 18시즌 연속 50타점도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고우석, 빅리그 도전 이어간다

디트로이트와 마이너 계약

고우석(26)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를 달리는 강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빅리그 도전을 이어간다.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등 지역 언론은 25일 디트로이트 구단이 볼넷 전력 보강을 위해 고우석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구단인 탈리도 머드헨스에 배정된 고우석은 최근 홈구장이 있는 오하이오주 탈리도에 도착해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년 총액 450만달러(약 61억원) 계약을 체결한 고우석은

볼과 4개월 만에 마이애미 말린스로 트레이드됐다.

빅리그에 올라가지 못한 채 미국 생활 첫해를 보낸 고우석은 올해 재기를 다짐했으나 스프링캠프 중이던 2월 중순 연습 도중 오른손 검지가 부러져 경쟁에서 이탈했다.

재활을 마치고 지난달 실전에 복귀한 그는 방출되기 전까지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잭슨빌 점보슈립스 소속으로 5경기에 등판해 52이닝 동안 1볼넷 5탈삼진 평균자책점 1.59를 남겼다.

고우석은 디트로이트 입단으로 KBO리그 복귀 대신 빅리그 무대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합뉴스

선생님이 골 넣었다... 오클랜드 ‘기적의 무승부’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보카 주니어스와 1-1

“우리가 커다란 심장을 가진 작은 클럽이라는 걸 모두가 봤을 겁니다.” (폴 포사 오클랜드 시티 감독)

뉴질랜드의 약체 오클랜드 시티 FC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귀중한 승점 1을 따내며 대담한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클랜드 시티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32개 클럽 중 최약체로 꼽혔다.

선수 대부분이 전업 축구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혹은 세미프로 구단이다.

교사, 학생, 제약회사 직원, 배달부, 부동산 중개인 등 생업을 가진 선수들은 연차를 내고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총상금이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에 달하는 조호화 대회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작은 구단 오클랜드 시티는 오세아니아 챔피언의 자부심으로 바이에른 뮌헨(독일), 벤피카(포르투갈),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 등 세계적인 빅클럽들과 조별리그 C조에서 당당히 경쟁했다.

뮌헨에 0-10, 벤피카엔 0-6으로 득점 없이 거푸 크게 졌지만, 25일(한국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치른 보카 주니어스와의 3차전에서 골을 터뜨리고 1-1로 비겨 승점을 따냈다.

전반 26분 골키퍼 네이션 개로우의 자책골에 먼저 실점했을 때만 해도 오클랜드 시티의 무득점 대패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클랜드 시티는 몸을 날리는 필사적인 수비로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보카 주니어스가 쉴 새 없이 날린 슈팅은 골대를 맞거나 개로우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6분 오클랜드 시티 수비수 크리스천 그레이의 머리가 번뜩었다.



오클랜드 시티 크리스천 그레이(왼쪽). /연합뉴스

오른쪽에서 제르손과 고스가 올린 코너킥을 제대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마지막까지 오클랜드 시티 골문을 두드린 상대 슈팅도, 경기를 잠시 중단시킨 뇌우도 역사적인 승점 1 획득을 막지 못했다.

이날 보카 주니어스는 슈팅 40개를 날렸다. 오클랜드 시티의 슈팅은 단 3개에 불과했고, 건너 내기는 71회나 기록했다.

본업이 체육 교사인 그레이는 경기 뒤 “우린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는, 돈이 많지 않은 구단이다. (무승부로) 모두가 행복한 것이 기쁘다”면서 “한 달 동안 과제들이 쌓여있다. 곧 방학이 시작하는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폴 포사 오클랜드 시티 감독은 “보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사과한다”면서 “이번 무승부로 우리의 자부심과 평판을 조금은 회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